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 2019. 5. 2.(목) 총 6매(본문3, 참고3)		
담당 부서 국제항공과	담당 자 • 과장 신윤근, 사무관 황성필, 주무관 강규욱 - ☎ (044) 201 - 4211, 4209			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중국 가는 하늘 길, 더욱 편리하고 다양해진다

2일, 중국 운수권 배분...인천發 네트워크 확대 및 지방發 노선 다변화

- ◆ [소비자] 9개 노선 신설 및 14개 노선 독점해소를 통한 편의 증진
- ◆ [공항] 인천發 네트워크 확대 및 지방發 중국 노선 주당 62회 운항 확충
- ◆ [항공사] 저비용항공사(LCC)의 취항기회 확대를 통한 항공산업 발전 견인

< 여객 운수권 배분 주요 결과 >

구 분	배분 전	배분 후
노선 수 / 운항횟수	57개 / 449회	66개(+9) / 588회(+139)
지방發 노선 수 / 운항횟수	24개 / 108회	29개(+5) / 170회(+62)
운수권 보유비율(FSC:LCC)	89.5% : 10.5%	71.9% : 28.1%

* 중국내 항공자유화 지역인 산둥성, 하이난성을 제외한 국적 항공사만의 통계임

□ 한-중국 간, 우리 국적 항공사의 여객노선 수가 기존 57개에서 66개로, 운항횟수도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대폭 증가*하여, 항공 교통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.

* 단, 항공 자유화가 설정되어 운수권 제한 없이 무제한 취항 가능한 한국-산둥성, 한국-하이난성 간의 항공노선을 제외하고, 운수권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5월 2일,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3월 15일, 5년여 만에 개최된 한-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한 운수권 주70회와 정부보유 운수권 주104회를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배분(34개 노선)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중국 운수권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*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분되었다.

* 운수권은 「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에 관한 규칙(국토부령)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,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「항공교통심의위원회」에서 심의

□ 인천-베이징 간 새로 증대된 운수권 주14회가 대한항공·아시아나 등 기존의 양대 대형항공사(FSC)와 신규로 제주항공·티웨이 등 두 개의 LCC에 배분되었으며, 인천-상하이 간 주7회는 이스타에 배분되어 양국을 대표하는 도시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,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 증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또한, 현재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중 항공수요가 높은 인천-선양, 인천-난징 등 14개 노선*에 저비용항공사(LCC)를 중심으로 신규로 취항하게 됨으로써 독점이 해소되고,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운항 스케줄과 낮은 운임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.

* 독점 해소 노선: 인천發 선양·정저우·난징·항저우·하얼빈·청두·우한, 제주發 베이징·상하이·시안, 대구發 베이징, 부산發 장가계·엔지, 청주發 엔지

○ 그간 높은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항공협정 체계(3.15 항공회담에서 개선) 상 개설될 수 없었던 인천-장가계 등을 포함한 9개 노선*이 신규로 개설되어 우리 국민이 보다 다양한 중국 지역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.

* 신규 개설 노선: 인천-베이징(다싱신공항), 인천-장가계, 인천-난퉁, 인천-닝보, 청주-장가계, 무안-장가계, 대구-장가계, 무안-엔지, 대구-엔지

○ 아울러, 그간 노선 개설이 저조했던 지방發 노선도 기존의 24개 노선, 주당 108회 운항에서 29개 노선, 주당 170회 운항으로 크게 확충*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지방에 거주하는 항공 소비자도 인천 공항으로 가는 수고를 덜고 지방공항에서 직항편을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.

* 지방發 기존노선 증대: 부산發 장가계(+6)·엔지(+6)·상하이(+2), 청주發 엔지(+3)·하얼빈(+3), 대구發 베이징(+7)·상하이(+3), 제주發 베이징(+7)·상하이(+7)·시안(+3)

* 지방發 신규노선 개설: 청주發 장가계(+3), 무안發 장가계(+3)·엔지(+3), 대구發 장가계(+3)·엔지(+3)

□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이 인천공항의 동북아 대표 허브化 및 지방 공항 활성화 등에 기여하여 항공산업의 질적·양적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,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던 LCC의 안정적 사업확장과 양대 FSC의 미주 중장거리 노선 등과 연계한 전략적 네트워크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○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,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3~4개월 내에 취항이 가능하다.

□ 국토부 어명소 항공정책관은 “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이 그동안 한-중국 간 증가하고 있는 관광 및 비즈니스 분야 항공교통 수요를 뒷받침하고, 지방공항 및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○ 또한, “향후 중국을 포함하여 동남아, 유럽 등 주요 국가와의 항공 회담을 계속 추진하여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, 항공교통 소비자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 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”이라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황성필 사무관(☎ 044-201-42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**노선별 운수권 배분결과**□ **여객 노선**

순	노선	기존 운항 현황(회)	배분 대상	배분 결과
1	인천-베이징(서우두)	대한항공(14) 아시아나(17)	주7회	대한항공 주4회 아시아나 주3회
2	인천-베이징(다싱新)	-	주7회	제주항공 주4회 티웨이 주3회
3	인천-상하이	대한항공(21) 아시아나(28)	주7회	이스타 주7회
4	부산-상하이	대한항공(9) 아시아나(5)	주7회	아시아나 주2회
5	제주-베이징	대한항공(7)	주7회	제주항공 주7회
6	제주-상하이	진에어(7)	주7회	이스타 주7회
7	대구-베이징	제주항공(3)	주7회	티웨이 주7회
8	대구-상하이	티웨이(4)	주3회	티웨이 주3회
9	인천-엔지	대한항공(7) 아시아나(7)	주7회	아시아나 주1회 제주항공 주6회
10	인천-선양	대한항공(14)	주7회	티웨이 주7회
11	인천-선전	대한항공(7) 아시아나(7)	주7회	아시아나 주1회 에어부산 주6회
12	인천-정저우	대한항공(7)	주4회	이스타 주4회
13	인천-난징	아시아나(7)	주4회	대한항공 주4회
14	인천-항저우	아시아나(7)	주3회	대한항공 주3회
15	인천-하얼빈	아시아나(7)	주3회	제주항공 주3회
16	인천-청두	아시아나(8)	주3회	에어부산 주3회
17	인천-우한	대한항공(5)	주3회	티웨이 주3회

순	노선	기존 운항 현황(회)	배분 대상	배분 결과
18	인천-원저우	티웨이(3)	주3회	티웨이 주3회
19	인천-장가계	-	주6회	대한항공 주3회 에어서울 주3회
20	인천-난퉁	-	주3회	제주항공 주3회
21	인천-닝보	-	주3회	에어부산 주3회
22	부산-장가계	에어부산(2)	주6회	에어부산 주3회 제주항공 주3회
23	부산-엔지	에어부산(3)	주6회	에어부산 주3회 이스타 주3회
24	청주-엔지	이스타(3)	주3회	티웨이 주3회
25	청주-하얼빈	이스타(1)	주3회	이스타 주3회
26	제주-시안	진에어(3)	주3회	제주항공 주3회
27	청주-장가계	-	주3회	이스타 주3회
28	무안-장가계	-	주3회	제주항공 주3회
29	무안-엔지	-	주3회	제주항공 주3회
30	대구-장가계	-	주3회	티웨이 주3회
31	대구-엔지	-	주3회	티웨이 주3회

□ 화물 노선

순	노선	기존 운항 현황(회)	배분 대상	배분 결과
1	인천-시안	-	주4회	대한항공 주2회 아시아나 주2회
2	인천-청두	-	주3회	에어인천 주3회
3	화물 5자유(중서부)	아시아나(3)	주5회	대한항공 주2회 아시아나 주2회

참고 2

항공사별 운수권 배분결과

항공사	배분 총괄	운수권 수시배분 결과	
대한항공	4노선 주14회 *화물 1노선 주2회	인천-베이징(서우두) 주4회 인천-난징 주4회 인천-항저우 주3회 인천-장자제 주3회 인천-시안(貨) 주2회	
아시아나	4노선 주7회 *화물 1노선 주2회	인천-베이징(서우두) 주3회 부산-상하이 주2회 인천-엔지 주1회 인천-선전 주1회 인천-시안(貨) 주2회	
제주항공	9노선 주35회	인천-베이징(다싱) 주4회 제주-베이징 주7회 인천-엔지 주6회 인천-하얼빈 주3회 인천-난퉁 주3회	부산-장자제 주3회 제주-시안 주3회 무안-장자제 주3회 무안-엔지 주3회
에어부산	5노선 주18회	인천-선전 주6회 인천-청두 주3회 인천-닝보 주3회 부산-장자제 주3회 부산-엔지 주3회	
이스타	6노선 주27회	인천-상하이 주7회 제주-상하이 주7회 인천-정저우 주4회 부산-엔지 주3회 청주-하얼빈 주3회	청주-장자제 주3회
티웨이	9노선 주35회	인천-베이징(다싱) 주3회 대구-베이징 주7회 대구-상하이 주3회 인천-선양 주7회 인천-우한 주3회	인천-원저우 주3회 청주-엔지 주3회 대구-장자제 주3회 대구-엔지 주3회
에어서울	1노선 주3회	인천-장자제 주3회	
에어인천 (화물 전용)	화물 1노선 주3회	인천-청두(貨) 주3회	